

천주교 캔버라대교구 한인 성당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백)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가정 성화 주간)



전담신부 : 진윤기 토마스 아퀴나스
 사목회장 : 이광하 하상 바오로
 주일미사 : 오후 3시
 고해성사 : 미사 전 30분
 어린이 전례 : 주일 오후 3시
 유아세례 :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이 메 일 : canberra.kcc@gmail.com)
 주 소 : South Belconnen Parish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안내전화 : 0490-795-346
 홈페이지 : <https://www.kcccanberra.org/>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모임(9일 기도)
 화요일, 19:00, 온라인(Zoom)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 3 West Ave, Queanbeyan, NSW

※ 교황님 기도지향(12월)

복음화 지향: 교리 교사들

하느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교리 교사들이 성령의 권능 안에서 담대하고 창의적으로 하느님 말씀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어린이 안전 규정

성당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보호자의 보호와 지도 아래 있을 수 있도록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나자렛의 성가정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을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가족이 화목하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해체된 가정과 위기를 겪는 가정에 주님께서 은총을 내리시어,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제1독서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3,2-6.12-14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아버지를 공경한다.>

화답송 시편 128(127),1-2.3.4-5(◎1)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3,12-21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생활>

복음 환호송 콜로 3,15.16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알렐루야.

복음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41-52

<부모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냈다.>

영성체송 바룩 3,38 참조

우리 하느님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함께 사셨네.

영성체 후 묵상

성가정을 통하여 참된 삶의 모범을 보여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노래합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가정 성화 주간

♣ 사랑과 구원의 학교인 성가정 ♣

오늘 교회는 나자렛의 성가정의 모범을 본받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가정은 하느님의 섭리와 뜻이 구체화되고 예수님의 강생이 실현되는 터입니다. 사회의 세포인 가정이 하느님의 모습과 사랑을 드러낼 때 모두가 인간다워질 수 있고 세상도 밝아질 것입니다. 가정은 고통과 시련을 겪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웁니다. 가정은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랑의 학교'요 '구원의 학교'입니다. 가정은 법과 정의, 양심과 진리를 배우는 '진리의 학교'이기도 합니다. 가정이 기숙사가 아닌 성가정이 되려면 나자렛 성가정을 본받아야겠지요. 성가정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며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성가정은 주님의 구원사업에 동참하는 가정입니다.

나자렛 성가정은 이주민으로서 처녀 잉태라는 사회적 짐을 떠안았습니다. 아기 예수는 일생을 통하여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으며(루카 2,35) 가정을 파탄으로 내뿜습니다. 아들 예수는 복음을 선포하다가 미움과 배척을 받아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생을 마칩니다. 그러나 인류를 향한 하느님의 구원계획은 불의와 불평등과 탐욕을 뚫고 실현되어갑니다. 나자렛 가정은 초라하지만 인간들에게 자기가 태어난 모태의 고요와 창조의 순간을 상기시켜줍니다(루카 2,29-30 참조). 마리아는 처녀 잉태를 통보받고 당혹스럽고 이해할 수 없었으나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며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마리아는 침묵 중에 기도하시고 말씀을 경청함으로써 주님의 가르침을 가족들에게 전한 최고의 가정교사입니다.

한편 요셉은 약혼녀의 처녀 잉태로 받게 될 비난과 위험 앞에서, 성령의 힘에 완전히 자신을 맡기고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따릅니다. 나아가 그는 모자를 부양하려고 열심히 일함으로써 노동의 존엄성을 보여줍니다. 그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리아와 아기 예수' 늘 함께 하면서 돌본 충실한 가장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모세가 정한 법대로 성전에 올라가 첫아들을 봉헌합니다. 가난한 그들은 하느님께 자신들의 모두를 봉헌한 셈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을 뿐 아니라, 가난한 이를 위하여 가난한 이로 오신 것입니다(루카 4,18-22 참조). 성가정은 가난 가운데 하느님의 부요를 꽃피웁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도 나자렛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며 사랑함으로써 구원사업에 동참하는 가정이 되도록 힘써야겠지요. 성가정의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마땅합니다(집회 3,2-6). 부모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생명을 건네주신 하느님의 창조와 사랑의 통로인 까닭입니다.

한편 부모들은 자녀들을 '들볶아 기를 꺾지 말고'(골로 3,21) 존중하며 사랑의 동반자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부부들은 제 몸처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3,18-19). 또한 성가정은 삼위일체의 사랑의 신비를 관상하고 말씀을 경청하여, 그 힘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이웃 사랑의 불쏘시개가 되도록 힘써야겠습니다.

기경호 프란치스코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복음 필사 |

내 마음의 성경
한구절



'양과 함께 있는 성가정'
라파엘로 산치오 작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루카 2,51).

.....

.....

.....

.....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세계 평화의 날) 미사안내 : 2022 년 1 월 1 일(토) 오후 3 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제 55 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 (2022 년 1 월 1 일)

“냉전보다 무기가 더 많은 오늘날, 교육과 노동으로 평화 건설해야”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오는 2022 년 1 월 1 일 제 55 차 세계 평화의 날을 위한 교황 담화를 발표하셨습니다. 교황님은 “귀척 터질 듯한 전쟁과 분쟁의 소음”을 규탄하고 감염병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한 피해, 특별히 노동계의 현실을 짚으셨습니다. 아울러 기후행동을 위한 수많은 젊은이들의 헌신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국가복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노예상태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을 개선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담화 전문 보기 : <https://www.cbck.or.kr/Notice/20211119?gb=K1200>

※ 2022 년 제 55 차 세계 평화의 날 교황 담화 발표 기자회견 (<https://www.vaticannews.va/ko/vatican-city/news/2021-12/conferenza-stampa-messaggio-papa-turkson-giovani-coronavirus.html>)

“세대 간 대화, 교육, 노동: 항구적 평화 건설을 위한 도구”라는 주제로 발표된 제 55 차 세계 평화의 날 교황 담화와 관련해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자들은 교황 담화를 아래와 같이 다각도로 조명하였습니다.

만남의 문화를 위해 일합시다

피터 텍슨 추기경님은 다양한 관점에도 불구하고 “만남의 문화”를 증진해야 한다며 “최고의 존엄을 누리고 공동선을 존중하는 인간이 모든 정치·사회·경제 활동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화 건설은 존엄이 “손상된 사람들”의 고통을 잊지 않습니다

알레산드라 스메릴리 수녀님은 전쟁이 단순히 무기로만 벌어진 싸움이 아니라 “인간이 오랫동안 자연과 어머니 대지를 상대로, 또 다른 살아있는 종들을 상대로 벌여온 싸움”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평화의 건설은 “외적으로, 그리고 존엄이 손상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공존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은 돌봄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스메릴리 수녀님은 “돌봄의 제공과 요청은 인간적·영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모든 것을 시장의 논리에 맡겨 버린다면, 버려지는 사람들의 수는 늘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소득과 돌봄에서 소외될 것입니다.”라며 노동이 돌봄과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더불어 스메릴리 수녀님은 돌봄이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 되고 또 그렇게 남아있어야 한다”며, 이는 “형제애의 기본 원리를 표현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주 현상을 이해하려는 노력

파비오 바지오 신부님은 “다양한 문화를 아우르는 대화의 역량은 진실하고 효과적인 통합 과정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이주민 2 세대와 3 세대가 보여준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문화를 창출하고 자유와 책임을 보장하는 가르침으로 이해되는 교육”과 “이주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중요성을 지니는 노동”을 강조하셨습니다.

사회 정의에 맞을 내린 평화의 장인

아부바카르 수마호로 ‘노동자 연맹’ 대표 겸 노동운동단체 ‘보이지 않는 이들’의 대변인은 기후위기가 탐욕과 부패에 연루돼 있다며, 따라서 경청과 관대함을 비롯해 특별히 교황님이 제안하는 △세대 간 대화 △교육 △노동 등 세 가지 방법으로 “영적 혼란”에 직면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할 때라야 우리가 “인간을 위한 경제적 관점 안에서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사회 정의에 맞을 내린 평화의 건축술”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2 년 사순절 떼제(TAIZÉ) 주말 피정

- 일시 : 2022 년 3 월 11 일(금) 오후 6 시 - 13 일(주일) 오후 1 시
- 장소 : Mt Carmel Retreat Centre 247 St Andrews Road, Varroville NSW 2566
- 예약 : <https://mtcarmel.com.au/carmelite-retreat-program>
- 문의 : John Ransom Manager Mt Carmel Retreat Center ☎02 8795 3400



※ 공동체 설정 10 주년 기념선물과 2022 년 공동체 달력을 미사 후 성당 입구에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주간실천 |

피조를 보호를 위한 50까지 손쉬운 방법 25



운전할 때는 평화의 속도로 달려요,
시내는 50km, 고속도로는 100km 이하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발자국 줄이기 2



절수기기 사용 늘리기

→ 1.58kg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온라인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https://anu.zoom.us/j/5860472074?pwd=L1JMeGxUTUtsdVROMXp1WURONDFVZz0>)

주일미사 의무 관면 (온라인 미사)

크리스토퍼 대주교님은 지난해 3월부터 팬데믹 기간동안 주일미사 의무에 대한 관면을 허락하셨습니다. 미사 참례가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 미사 중계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Catholic Voice

<https://www.catholicvoice.org.au/mass-online/>

Mass for you at Home

<https://massforyou.com.au/>

Mass on Demand

<https://www.youtube.com/user/cathnews>

평화방송 매일미사

<https://www.youtube.com/channel/UCBoZynea6G3hlgMA1NEQ-zw>



주모경을 바친 후,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평화의 모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를 바칩니다.

‘평화를 구하는 기도’ 또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함께 바칠 수 있습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일대기 도서 판매(\$16)

문의 : 각 소공동체장 또는 이민정 글라라

주일 미사 참례자수

| | | | |
|-----------|-------------|-----------|------------|
| 12 월 12 일 | 성인 32 아이 17 | 12 월 19 일 | 성인 27 아이 7 |
|-----------|-------------|-----------|------------|

우리들의 정성 (12 월 18 일(토)~24 일(금))

| | | | | | | | |
|-----|-----|-----|-----|-----|-----|-----|-----|
| 구민식 | 김요한 | 김태린 | 안영규 | 양홍석 | 윤현태 | 이지영 | 장호훈 |
| 주정자 | | | | | | | |

교무금 : \$340 (9가정) / 봉헌금 : \$160

※ 교무금 온라인 납부/공동체 계좌 정보 (Reference : 납부자 이름 반드시 기재)

Name : Korean Community Church / BSB : 062786 / Account Number : 000027424

봉사자 안내

○ 독서 : (12 월 26 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가정 성화 주간) 주정자 루치아, 김우경 가브리엘라 (1 월 1 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세계 평화의 날) 이국원 필립보 네리, 김미현 보나

○ 체온측정·방명록·미사 후 성당 뒷정리 : (26 일) 사목회 → (1 월 1 일) 사목회 → (2 일) 마태오회

대교구 최신 코로나 19 방역수칙(12 월 22 일(수)부터 유효)

① 실내에서 1 명당 2 제곱미터(sqm) 공간 확보(직계가족, 유아 제외) ②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12 세 미만 제외)

③ 성당 입구에 비치된 Check In CBR 앱으로 방문자 등록 ④ 성당 입구에서 체온측정 및 손소독

ACT Health COVID-19 웹사이트 : <https://www.covid19.act.gov.au/>

♡ 오현우 스테파노, 최재원 스테파노, 황양훈 스테파노(26 일), 고준호 사도요한(27 일) 형제님들의 영명 축일을 축하합니다.